

〈자유연제 IV 14:30 ~ 15:20〉

중장년층에서의 외상성 견관절 탈구

Primary traumatic anterior shoulder dislocation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patients

이광원, 최원식

울지의대 정형외과

서론

견관절의 외상성 탈구는 젊고 활동적인 연령층에서 주로 발생하며 반복적인 재발성 탈구가 주된 합병증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에 중장년층에서는 재발성 탈구보다는 회전근개와 신경손상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있다. 저자들은 본 정형외과에서 경험한 40세 이후의 외상성 견관절 전방탈구 환자의 재탈구, 회전근개 및 신경손상, 동반골절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본 울지의대병원 정형외과에서 1991년 5월부터 1998년 10월까지 내원한 27례의 환자중 최종 추시가 가능하였던 18례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5세(범위, 40-75)였다. 추시기간은 평균 27 (범위, 6-48)개월이었다. 남자 12례, 여자 6례였으며 우측이 10례, 좌측이 8례였다. 수상전에 견관절 동통이나 운동장애등의 과거력이 있었던 환자는 제외하였다. 12례의 환자에서 자기공명촬영술을 시행하였다.

결과

최종추시시 임상적 평가는 UCLA 견관절 기능 평가법을 사용하였으며 우수 10명 (55%), 양호 3명 (17%), 보통 3명 (17%), 불량 2명 (11%)이었다. 동반손상으로 회전근개파열이 6례였고 이중 상완골 대결절의 골절과 동반된 손상이 3례, 상완골 대결절의 단독골절이 6례였다. 전체 18례의 환자중 9례에서 회전근개 봉합술과 상완골 대결절의 관혈적 정복과 내고정을 시행하였다. 액와 신경의 단독 손상이 1례, 회전근개파열과 동반된 액와신경손상이 2례였다. 최종 추시시 액와신경손상은 모두 회복되었다. 수술을 시행한 환자중 최종추시시 우수 4명, 양호 5명, 불량 1명이었다. 전체 환자중 1례에서 재탈구가 발생하였다.

결론

중장년층에서의 외상성 견관절 탈구는 젊은 활동적인 연령층과 달리 재탈구의 가능성은 적으나 회전근개와 액와신경손상, 대결절의 골절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으며 내원당시 세심한 이학적 검사후 증상이 의심되는 경우 자기공명촬영술등을 통한 철저한 동반손상을 확인하여 조기에 회전근개 봉합술이나 대결절의 고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